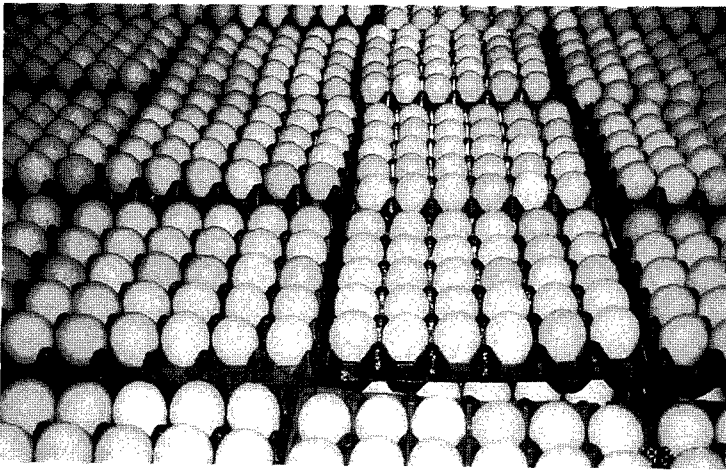


수급조절 능력 5%선에 머물고 있다

□ 취재/이인수 기자



우 리나라 계란유통구조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생산자 가격이 크게 하락해도 도매가격이나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적용되지 못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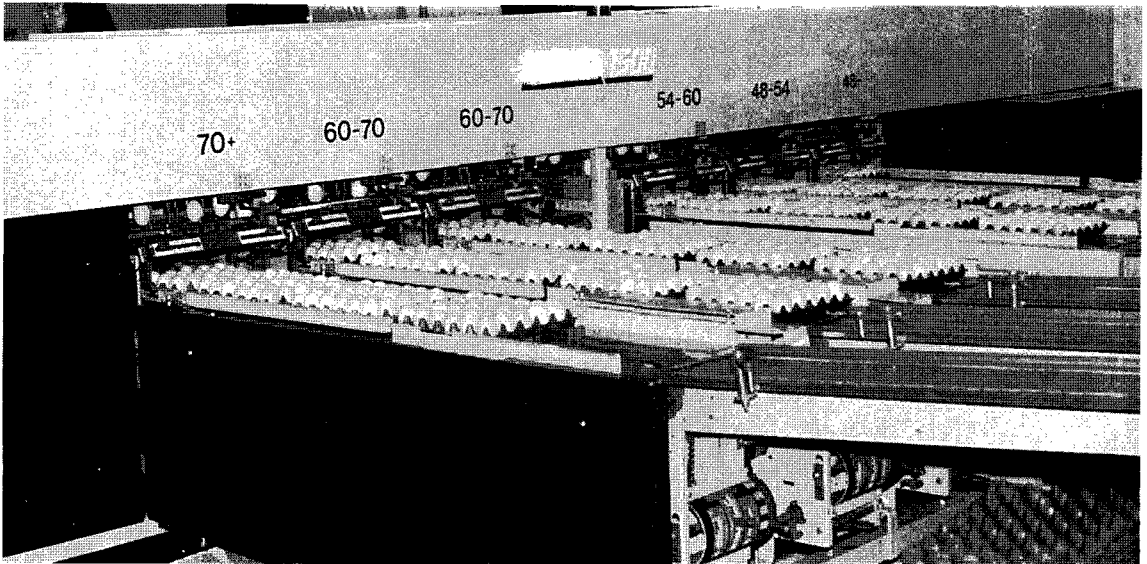
여 왔다. 이런 불합리한 유통 구조체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내 연간 계란 생산량은 약 86억 5천여만개('92년도 사료량, 산란율 70% 78주령 기준), 일일생산량은 약 2천3백여만개로 국민1인당 계란소비량은 196개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서울지역의 계란소비량은 전체계란생산량의 약 35%에 해당하는 약 8백여만개에 이른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계란유통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양계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방법, 둘째 생산자가 직접 유통에 참여하는 방법, 셋째 상인주도 유통



체계 방법 등 크게 3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합주도의 유통체계 방법은 최근 생산자들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각지역별로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을 비롯하여 경북, 전북, 전남, 천안 등 양계조합이 계란집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각지역 양계조합에 설치된 집하장은 G·P처리를 거쳐 이를 판매·가공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여 다시 상인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어 유통단계를 하나 더 거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생각해 볼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합은 좁게 보면 조합원을 위한 단체이고, 넓게보면 전체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임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지역의 유통되는 계란량을 약 1천만개로 보았을때 약 13%에 해당되는 하루 130만개를 수급조절 차원에서 유통시키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체화되는데도 문제점이 있지만 더 큰 문제점은 지방에서 생산된 물량이 서울로 유입되어 유통체계를 더욱더 혼란시킨다는 점이다.

현재 G·P과정을 거쳐 생

산자단체가 계란을 유통시키는 양은 전국적으로 대략 5%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대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물량은 대개 그 지역에서 소비시키는 것이 기본원칙인데도 일부 지방에서 생산된 물량은 대부분 서울로 반입시켜 오히려 그지역에는 타지역 계란이 유입되어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모순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전국 계란유통의 90% 정도를 유통시키고 있는 상인들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문제는 계란가격 결정시 생산자가 아닌 상인이 주도하게 되며, 상인이 제시한 가격에 의해 출하시킬 수 밖

에 없고, 또 다른 상인들은 이 가격 이하 다른거래 농장에 제시함으로써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무리 조합의 유통체계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계란유통을 100%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생산자나 단체의 유통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막대한 체화물량 발생시 저장, 보관상태가 미약해 상인주도하에 유통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주도의 유통개선 차원에서 광주, 안성, 동두천, 포천 등 4개소 집하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양계조합의 숙원사업이던 한국난가공을 인수, 가동할 예정에 있어 체화물량을 일부 공업용으로 흡수하여 수

표1.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특수란 및 위생란 현황

상 품 명	기술/제조원	포장단위	상 품 명	기술/제조원	포장단위
인삼란	만나원	6	영양란	축협	10
오메가란,자연란	폴무원	6	황금알	동광식품	6
자연란	금강농장	6(10)	비타옥도란	한우리축산	10
인삼약초란	인애농장	10	장수란	남부유통	
자연란	안성농장	10	위생란	한냉	
자연란	용원농장	10	자연란	현대	10
장수란,자연란	덕신농장	10(6)	위생란	서부농산	10
자연란,위생란	성장축산	10	위생란	새한	
토종란,영양란,인삼자연란	덕신농장		위생란	동부축산	10
해초란	성장축산		(특란,보통란)		
송학란	청상실업	6	장수란	삼정상사	10
장수란	삼정농장	10	장수란,자연란	신우농장	10
명가요드란(특란)	두산식품	6(10)	고창달걀	고창위생란	6
첵커수퍼란	퓨리나	10	토코란	해표사료	6
계란박사	홍성사료	6	으뜸란	천흥제일	9
강남영양란	강남농장	10	초롱란	삼양사	10
비타A,E계란	제일제당	9	바이탈계란	한냉통상	10
건강OK란	미원사료	6			

※ 본 자료는 1993년 10월 현재 서울일원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기자가 조사한 것이다.

입전란분에 대한 대체효과와 어울려 보다 다양한 제품개발

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접근해 나아갈 예정에 있어 계란소비 확대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상인주도 유통체계 방법을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계란 유통의 90% 이상이 이들에 의해 주도되어 있는데 문제는 적은 자본금으로 말미암아 계란을 보관, 저장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최근 상인들은 중간상인들의 개념이 사라지고 대상인과



소상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규모에 관계없이 상인들간의 경쟁이 과열됨으로 인해 덤핑 사례가 발생 이로인해 생산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상인들의 주장은 적정마진을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생산자들은 계란을 생산하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생산비이하로 출하 할 때도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 상인의 말에 의하면 최근 극심한 교통난으로 인해 하루 판매 할 수 있는 계란량은 1톤트럭 한대분 정도, 여기에 가득실을 경우 대략 1,800판 정도, 갯수로는 5만4천개 정도이다. 개당 5원의 적정마진을 보장해줄 경우 하루소득은 27만원 정도 한달 25일 기준으로 했을때 대략 6백7십5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실 임대비, 전화비, 차량유지비,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먹고살기에도 급급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복잡한 유통체계를 배제하고 판매망을 확보하여 직접유통에 참여하는 방법이 생산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표1에서

**계란 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
상인 조합들이
상품화를 통한
위생적인
계란생산을 위해
가일층 노력함과
아울러 계란의
우수성 홍보를
통하여
일반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란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보는 바와같이 최근 각종 특수란, 위생란 개념 차원에서 각 농장에 적합한 자기상품을 개발하여 직접유통에 참여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실제 양계농가에 있어서 생산만하고 계란수송과 판매는 생산자가 알바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탈피함을 의미한다.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다.

따라서 생산자는 적절한 양계산물 생산조절을 통하여 판매망 구축, 상인, 조합과의 연계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계란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 상인, 조합들이 상품화를 통한 위생적인 계란생산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는 한편 각 관련단체에서는 계란의 우수성 홍보를 통하여 일반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란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 141**